

2019년 3월 28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금리 변화에 주목하며 하락폭 축소 대형 기술주, 바이오 업종 부진 Vs. 운송, 소매유통업체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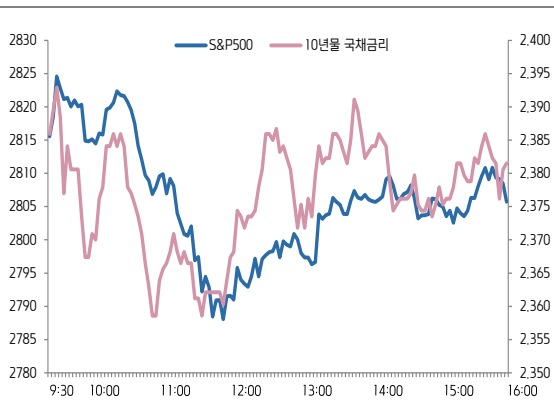
국채금리 하락 요인

미 증시는 전일에 이어 국채금리 영향을 받아 등락. 장 초반 독일 국채입찰 및 드라기 ECB 총재, 스티븐 무어 연준이사 지명자의 발언 영향으로 미국 국채금리가 낙폭을 확대하자 경기 둔화 이슈 재 부각되며 하락. 특히 바이오 및 기술주가 하락 주도. 반면, 장 후반 국채금리가 낙폭을 축소하자 주가지수도 동반 낙폭 축소(다우 -0.14%, 나스닥 -0.67%, S&P500 -0.46%, 러셀 2000 -0.39%)

미 증시가 여전히 국채금리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임. 미국 국채금리는 스티븐 무어 연준이사 지명자가 “작년 9 월과 12 월 금리인상은 잘못된 조치이기 때문에 당장 금리를 50bp 인하 해야 한다” 라고 주장. 이 발언이 알려지자 미국 국채금리는 하락. 이런 가운데 독일의 10 년물 국채입찰에서 낙찰된 평균 수익률이 -0.05%로 2016 년 10 월 입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응찰률도 지난해 1.5 배 정도였으나, 2 월(2.5 배)에 이어 2.6 배를 기록. 시장참여자들이 글로벌 성장에 대한 우려로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에 몰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음.

한편, 드라기 ECB 총재는 “ECB 는 위험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망이 급격하게 위축되면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다” 라고 언급. 더불어 “유로존은 급격한 위축은 아니며 일시적인 경기둔화(소프트패치) 단계일 뿐 점차 회복될 것이다” 라고 주장. 비둘기적 드라기 총재의 발언도 금리 하락 요인. 그러나 미국 무역적자 축소(mom -14.6%) 소식이 알려지자 금리 하락폭 축소. 더불어 중도 매파 성향의 로버트 카플란 델러스 연은 총재가 “금리 역전 현상은 폭이 깊거나 기간이 길어야 주목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두 가지 모두 발생하지 않아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다” 라고 주장한 점도 낙폭 축소 요인. 또한 5 년물 미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44 배)를 하회한 2.35 배를 기록한 점도 영향.

S&P500, 미 10년물 국채금리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145.62	-0.15	홍콩恒生	28,728.25	+0.56
KOSDAQ	728.45	-1.13	영국	7,194.19	-0.03
DOW	25,625.59	-0.13	독일	11,419.04	-0.00
NASDAQ	7,643.38	-0.63	프랑스	5,301.24	-0.12
S&P 500	2,805.37	-0.46	스페인	9,229.90	+0.51
상하이종합	3,022.72	+0.85	그리스	713.73	+0.21
일본	21,378.73	-0.23	이탈리아	21,194.19	+0.2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반도체 업종 부진

마이크론(-2.70%)은 삼성전자의 실적 경고 이후 하락세를 이어갔다. 더불어 애플과 퀄컴의 특허 분쟁 여파로 아이폰 수입 금지 권고 소식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인텔(-0.52%), TI(-2.18%)는 물론 아나 로그디바이스(-2.00%) 등도 동반 하락 했다. 이 여파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45% 하락 했다. 헬스케어 회사인 웰케어(+12.34%)는 센테네(-4.98%)가 인수한다고 발표하자 급등 했다. 다만 센테네 는 비용 부담 여파로 하락 했다. 이 합병으로 CVS헬스(-2.42%), Anthem(-1.84%) 등 경쟁업체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이 제기되며 하락했다.

주택건설업체 KB홈(+2.70%)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자 상승 했다. 로이어스(+1.35%), 레나(+3.94%) 도 동반 상승 했는데 주택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영향을 줬다. 보잉(+1.03%)은 737맥스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발표 이후 상승 했다. 사우스웨스트항공(+2.22%)는 737맥스 운행 정지로 수 익 전망 하향 조정 발표에도 상승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2.42%), 델타항공(+1.79%) 등 항공업종 모두 동반 상승을 했다. 이는 보잉 737맥스 사태로 인해 부진한 실적 전망이 현실화 되었으나, 이미 많은 부분 반영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모습이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26%	대형 가치주 ETF(IVE)	-0.33%
에너지섹터 ETF(OIH)	-0.82%	중형 가치주 ETF(IWS)	-0.22%
소매업체 ETF(XRT)	+1.02%	소형 가치주 ETF(IWN)	+0.08%
금융섹터 ETF(XLF)	-0.43%	대형 성장주 ETF(VUG)	-0.53%
기술섹터 ETF(XLK)	-0.57%	중형 성장주 ETF(IWP)	-0.61%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57%	소형 성장주 ETF(IWO)	-0.78%
인터넷업체 ETF(FDN)	-1.26%	배당주 ETF(DVY)	-0.23%
리츠업체 ETF(XLRE)	-0.33%	신흥국 고배당 ETF(DEM)	-0.82%
주택건설업체 ETF(XHB)	+0.97%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81%
바이오섹터 ETF(IBB)	-1.39%	미국 국채 ETF(IEF)	+0.29%
헬스케어 ETF(XLV)	-0.83%	하이일드 ETF(JNK)	+0.06%
곡물 ETF(DBA)	-0.59%	물가연동채 ETF(TIP)	+0.04%
반도체 ETF(SMH)	-1.46%	Long/short ETF(BTAL)	+0.5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88.39	-0.70%	-1.24%	+0.77%
소재	341.42	-0.09%	-1.67%	-2.02%
산업재	621.30	+0.10%	-0.30%	-3.33%
경기소비재	891.42	-0.26%	-0.02%	+2.23%
필수소비재	573.72	-0.40%	+1.40%	+2.86%
헬스케어	1,047.30	-0.81%	-1.66%	-1.38%
금융	422.33	-0.44%	-2.78%	-4.12%
IT	1,281.78	-0.55%	-0.32%	+3.02%
커뮤니케이션	158.02	-0.54%	-0.67%	+2.60%
유틸리티	297.08	-0.67%	+1.89%	+3.74%
부동산	223.00	-0.35%	+1.69%	+4.1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종목 장세 지속

MSCI 한국 지수 ETF 는 1.10% MSCI 신흥 지수 ETF 도 1.08%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1,933 계약) 여파로 1.50pt 하락한 276.5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38.1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증시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며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졌다는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이다. 이는 외국인의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 증시가 부진했으나, 최근 하락폭이 컸던 항공업종을 비롯해 일부 종목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듯 연초 대비 낙폭이 컸던 종목 및 시장 수익률 하회했던 종목들이 낙폭이 제한되거나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미국 금리차 역전 등으로 비록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되었으나 급격한 주식시장 하락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반증한다. 오히려 저가 매수에 가담하거나 호재성 재료가 있는 종목군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된 점이 특징이었다. 이는 한국 증시에서의 외국인의 행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증시는 연초 대비 통신서비스(-7.22%), 운송(-3.35%), 조선(-3.03%), 기계(-3.02%) 등이 하락폭이 컸다. 반면, 반도체(+18.19%), 화장품(+17.00%), 디스플레이(+12.37%) 등이 상승 상위 업종이었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무역적자 축소

1 월 미국 무역수지는 511 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2 월(599 억 달러 적자) 발표치나 시장 예상치(573 억 달러 적자)를 크게 하회한 결과였다. 한편 수출은 전월 대비 0.9% 증가했으며, 수입은 전월 대비 2.6% 감소 했다. 대 중국 무역적자 규모는 332 억 달러로 전월 대비 14% 감소했다.

3 월 스탠다드 스트리트 지수는 전월(70.9) 보다 상승한 71.3 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기준선인 100.0 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기관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에 안전자산 비중이 많음을 말해 준다. 시장은 미-중 무역분쟁이 투자심리 위축을 불러왔다는 판단이다. 지역별로 보면 북미지역이 2.1 상승한 68.3 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유럽은 7.8 하락하며 88.4 로 발표되었다. 아시아 기관투자자들은 전월보다 3.6 상승해 100.0 을 기록해 아시아 기관들은 중립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중이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미 국채금리 하락세 지속

국제유가는 달러 강세 및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며 하락 했다. 더불어 EIA 가 지난주 원유재고가 280 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해 시장 예상치(-40 만 배럴)를 상회한 점이 부담이었다. 다만, 가솔린이 290 만 배럴, 정제유가 210 만 배럴 감소해 시장 전망치 보다 감소폭이 적었다는 점이 부각되며 낙폭은 제한 되었다.

달러화는 무역적자 축소 및 유로화 약세 영향으로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ECB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 경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개선이 기대되지만, 현재는 소프트패치가 진행중이라고 언급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이러한 드라기 총재의 발언으로 유로존 금리인상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점도 유로화 약세 요인 이었다. 반면, 파운드화는 메이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이 통과되면 총리 사임을 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노딜 브렉세트를 막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스티븐 무어 연준 이사 지명자가 50bp 금리를 당장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점, 독일 10년물 국채입찰에서 낙찰수익률이 2016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기록한 점, 드라기 ECB 총재가 유로존 소프트패치 언급을 한 점 등이 부담이 돼 하락 했다. 다만, 5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2.44 배)을 하회한 2.35 배에 그쳤다는 점, 미국 무역수지 적자폭이 전월 대비 14% 감소했다는 점이 부각되자 낙폭이 축소되었다.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및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08% 하락 했고 철근은 보합을 기록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9.41	-0.88	-1.36	Dollar Index	96.904	+0.17	+1.19
브렌트유	67.83	-0.21	-0.98	EUR/USD	1.1246	-0.18	-1.46
금	1,316.90	-0.34	+0.70	USD/JPY	110.51	-0.12	-0.17
은	15,298	-0.85	-0.13	GBP/USD	1.3243	+0.23	+0.34
알루미늄	1,911.00	+1.22	-1.34	USD/CHF	0.9954	+0.10	+0.28
전기동	6,335.00	+0.08	-1.89	AUD/USD	0.7086	-0.69	-0.42
아연	2,887.00	+0.49	+0.84	USD/CAD	1.3406	+0.19	+0.76
옥수수	373.75	-0.93	+0.61	USD/BRL	3.9776	+2.67	+5.30
밀	469.50	+0.05	+1.02	USD/CNH	6.7385	+0.22	+0.76
대두	887.50	-1.47	-2.04	USD/KRW	1134.50	+0.10	+0.36
커피	93.85	-1.57	-0.95	USD/KRW NDF1M	1138.15	+0.30	+1.16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379	-4.42	-14.75	스페인	1.052	-3.70	-10.90
한국	1.840	-6.50	-14.70	포르투갈	1.254	-3.40	-5.90
일본	-0.067	-0.20	-3.10	그리스	3.769	-0.90	-0.50
독일	-0.081	-6.60	-16.50	이탈리아	2.450	-1.50	-7.40